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 圖書館學, 다큐멘테이션, 情報學에 關하여

by Jesse H. Shera, Dean, School  
of Library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 Cleveland, Ohio.

李 炳 穆 譯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譯者註. 이 論文은 Jesse H. Shera 博士가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란 標題로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2 (March-April 1968), p. 58~65에 寄稿한 것을 Unesco와 筆者의 翻譯 許可를 얻어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Dr. Shera는 美國 오하이오州 클리블랜드市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버 大學校圖書館學大學院長 겸 同大學院 附設 다큐멘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研究所長으로 在職中에 있다.

Acknowledgements. *This paper is translated into Korean and reproduced "from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2 (March-April 1968)"—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Unesco.*

Otlet와 La Fontaine이 19세기도 다 갔을 즈음, 모든 기록된 지식을 모아 웅대한 世界 書誌를 작성하고자 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들은 적어도 Johann Trithem과 Konrad Gesner시대로부터 아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부터 전례 내려온 한 흐름(운동; movement)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 흐름의 跋現을 재촉하게 하였던 것이다.<sup>1)</sup> Brussels의 rue de Florence에서 처음으로 만나 사귀게 된 이 두 사람은 추측컨대 그들의 學理的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 있었는가를 그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고 또 그들이 生氣를 다시 불어 넣었던 흐름(운동)의 중요성도 오늘 날 우리가 보는 바 그 흐름에 따른 榮枯盛衰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

였던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기록된 지식의 세계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아랑곳 함이 없이 오직 이를 조직하고 색인하는 일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았지만 자기들의 기본적인 기술과 전략은 圖書館學(librarianship)에 틀렸던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세계 서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자기들의 分類體系의 礎石으로는 듀이十進體系(Dewey Decimal System)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書誌內容의 包括性 문제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圖書館學에서 해오던 書誌 資料의 主題 分析보다 더 날카로운 주제 분석에 고투하였고, 그들은 이 업무를 司書들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들의 활동을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하여 圖書館學內에 한 分派가 생겨났으니 그 분파의 끝은 아직도 들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a Fontaine과 Otlet가 그들의 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채 못되었을 때, 그때까지 圖書館學의 소외된 영역이었던 產業에 대한 도서관 봉사的重要性을 설교했었고, 또 美國에서 최초로 뉴저서지 公共圖書館에 產業部(New Jersey Public Library, Business Branch)를 두었던 John Cotton Danna는 美國圖書館協會(ALA)대열에서 이 점에 자기와 의견을 같이하는 적은 무리를 끌어 모아 特殊圖書館協會(SLA)를 조직하는데 앞장을 섰었다. 더 좋은 用語가 없었기 때문에 Danna는 자기의 활동을 特殊圖書館學(Special librarianship)이라 불렀던 것이다. Danna 運動과 圖書館學 母體인 ALA를 통합시키려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끝나 도서관 전문직은 잇달은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두번째로 司書들 사이의 불행한 금은 1930년대에 일어났으니 美國 다큐멘테이션機構(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의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sup>2)</sup> 이 기구는 학자들의 서지 활동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후원을 권장, 발전

1. Bradford, S.C. Fifty years of documentation. In: *Documentation*. 2nd ed. London, Crosby Lockwood, 1953, p.132-43.

Besterman, Theodore. *The beginnings of systematic bibl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35, p.6-20.

Savage, Ernest A. Co-operative bibliography in the thi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In: *Special librarianship in general libraries*. London, Grafton, 1939, p. 285-310

축진할 의도에서 美國內의 여러 학술단체의 대표자들로 조직된 하나의 기구로 본래 着想하였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그 기구의 회원중 가장 말발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은 새로운 방식의 寫眞複製(photographic reproduction) 특히 마이크로필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美國에 있어서의 다큐멘테이션은 이내 마이크로사진술(microphotography)과 같은 뜻이 되었으니 이는 마치 유럽에서의 다큐멘테이션이 國際十進分類(UDC)의 진작에만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것과 흡사하였다.

조직을 갖춘 다큐멘테이션 활동도 第2次世界大戰 중에는 그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으나 기계화한 정보 검색(mechanized information retrieval)을 조잡한 형태로나마 시험해 본 것은 大戰기간중 美軍의 몇몇 첩보 활동에 의해서였다. 終戰후 ADI(현재는 美國情報學會;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의 부활은 당시의 이른바 ‘기계식 문헌탐색’(machine literature searching)에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도 書誌라는 실타래의 실은 풀릴 줄 모르고 점점 더 얽히고 설키어졌다. 特殊圖書館協會(SLA)는 협회내에 다큐멘테이션部署(Documentation Division)를 두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화학 문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꾸민 화학자들은 美國化學會(ACS)내에 化學文獻部署(Chemical Literature Division)를 만들었으며, ADI 내에서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 중요성이 바뀌어짐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하게 처우당하고 있다고 느껴, 주로 마이크로필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자기들의 독립단체 즉 全國마이크로필름協會(National Microfilm Association)를 조직했던 것이다. 技術의인 글을 쓰는 執筆家나 편집자들도 ADI를 탈퇴했으며, 한편 과학초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단체를 구성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美國科學振興協會(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여러 情報學부서(information science section)를, 美國圖書館協會는 그前까지 있었던 部門相互間다큐멘테이션委員會(International Committee on Documentation)의 새로운 한 產物인 情報學 및 自動化部署(Information Science and Automation Division)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예로 든 것은 그 전부가 아니지만, ‘새로운 도서관학’과 연관된 전문단체의

성장과 오늘 날 이 분야의 성격을 특징지우는 번창의 정도를 지적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이와 같은 조직체의 대다수가 그 회원을 司書가 아닌 科學者 혹은 적어도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자로서 과학 본래 영역보다 과학 문헌 문체에 더 관심을 가져 다큐멘테이션으로 전향한 사람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司書를 공공연히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 두 系列의 發展

역사적으로 볼때 두가지 주요한 계열의 발전이 도서관운동의 성격을 특징지우는 바 있고, 분열에 대한 책임을 이념적인 면에서 져온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애초에 圖書館學은 학자들이 헌신하는 職이었다. 즉 나일江 어구의 알렉산더 도시에 Ptolemy가 세웠던 위대한 알렉산더 圖書館 시대로부터 인류의 모험에 대한 기록된 지식, 즉 Kenneth Bowdler의 말을 빌린다면 ‘轉寫’(transcript)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한 19세기 초까지 학자들이 몸담는 職이었다. 학자 중심의 사서가 지배했던 전문직이 그 이후로는 人間 完全可能性의 신념과 계몽받은, 교육받은 선거민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民主主義의 성장에 힘입어 평범한 사람의 일반적인 관심도 불러 일으켰었다. 공공도서관의 출현으로 인한 理想的인 지역사회봉사가 대두되었고 인간을 평가할 때 어느정도 自己改善을 하는가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으로서 교육의 효험이 대두 되었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對公衆關係를 유념하게 되었고 마치 교회가 새로운 전도를 시작할 때 심방 구역을 변경하듯 방향을 전환시켰던 것이다. 오늘날 ALA 본부를 시카고로부터 워싱턴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곧 ALA가 對公衆을 소홀히 하듯 한갓 정치적인 압력단체로만 변모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학자가 추구하는 職(scholarship)으로부터 실무 봉사(service)의 관점으로 보는 이러한 변화는 일찍이 1853년의 司書會議(Librarians' Conference)<sup>4)</sup>에 이미 잠재해 있었으며 이는 1876년 ALA가 창설되었을 때 뚜렷이 표면화되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확장된 도서관봉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Andrew Carnegie와 그의 이름을 딴 財團의 야망으로 후원을 받아 그 경비로 점점 強大해지게 되었는데 실은 카아베기나 카아베기 財團의 근본적인 관심은 書誌의인 면에 있었을 뿐이었다. 이때부터 圖書館學의 진로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 방향이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한 길은

2. Shera, Jesse H. *Mirror for documentalists*. D.C. *Libraries*, 27 (April 1956) p.2-4.

3. Binkley, Robert C. *Manual on methods of reproducing research material*. Ann Arbor, Michigan, Edwards, 1936, 307 p.

4. Utley, George B. *The Librarians' Conference of 1853*.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1, p. 189

전국적인 규모의 협회 즉 ALA의 한 부서로, 다른 한 길은 지방 및 지역적인 단체로, 또 다른 길은 FID, SLA, ADI 및 기타 연관된 조직체로 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으리라 생각된다. (표 1 참조)

圖書館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틈은 성장하는 기구상의 복잡성이라든가 도서관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非司書의 침입이란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圖書館學 그 자체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현상까지도 수반하였던 것이다. 침입자들은 도서관직 교육의 어떠한 부분도 자기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 할 것을 원치 않았

으며, 오래 전부터 司書에 의해서 채택되어 왔거나 혹은 폐기되어 있었던 方式로 스스로가 再發明한 사실 뿐임에도 불구하고 司書의 기능을 거절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가 司書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文獻情報活動家一情報專門家(documentalist-information specialist)들이 수년간에 걸쳐 벌인 투쟁은 지적인 제몽보다 감정적인 대립을 낳게 만들었고, 또 이러한 좋지못한 결과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해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專門職化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흥미있는 일로서 異質的인 한 단체가 침입해 들어간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어 前者의 새로운 한 학문을 밖으로 들어내 보이고저하는 욕망의 한 例로 볼 수 있다. 用語를 바꾸는 일은 實際(實務)의 성격을 바꾸는 일로 믿어 왔으나 '檢索語'(descriptor)란 용어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은 아몽든 '主題名標目'(subject heading)에 자기들 대로의 과학적인 품위를 부여해서 선명한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게끔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허물없이 끝낸 없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속담은 특히 용어에 있어서 그러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프론을 두른 科學者들은 流通臺(貨出, 出納臺) 뒤

에서 일하고 있는 약간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상냥한 숙녀를 마다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거부하였다. 학문의 햇불을 품었다는 이러한 백발의 과학자들이란 전통적인 圖書館學의 시대착오자로 우리는 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자신은 혹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쯤이라도 自問해 보지 않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역주주: 에프론을 두른 과학자란 은유적인 표현은 미국에서는 사서가 대부분 여자들이기 때문에 女司書와 科學者를 비교하기 위해서였고, 백발의 과학자란 여사가 과학자보다 비교적 젊고 봉사직에 종사하니까 상당한 반면 과학자는 여사에 비해 대체로 더 늙었고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글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용어의 정의 문제는 공명정대하게 다루고 있다.

用語의 定義 問題

다큐멘테이션 선봉이 절정에 달했을 때, 누가 그렇게 정의하였는지 아깝게도 그 이름이 후대에 알려진 바 없지만 다크멘테이션이란 용어를 '아마추어가 하는 도서관학'으로 정의하였다. 말의 캐리커처어가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가 옥스포드 英語辭典의 한 記入語로 들어가기에는 거의 무가치하다. Otlet은 다크멘테이션이란 용어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 · 모든

종류의 기록을 수집, 분류, 배포하는 한 과정'이라고 정의하여 과정과 절차에 중점을 두는 정의를 내렸다. S.C. Bradford는 Otlet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따랐지만 圖書館學은 學(science)이 아니고 術(art)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術이란 '지적 활동의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창조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주제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업적을 충분히

5. Otlet, Paul. *Traite de documentation: le livre sur le livre, théorie et pratique*. Bruxelles, Editions Mundeum, 1934,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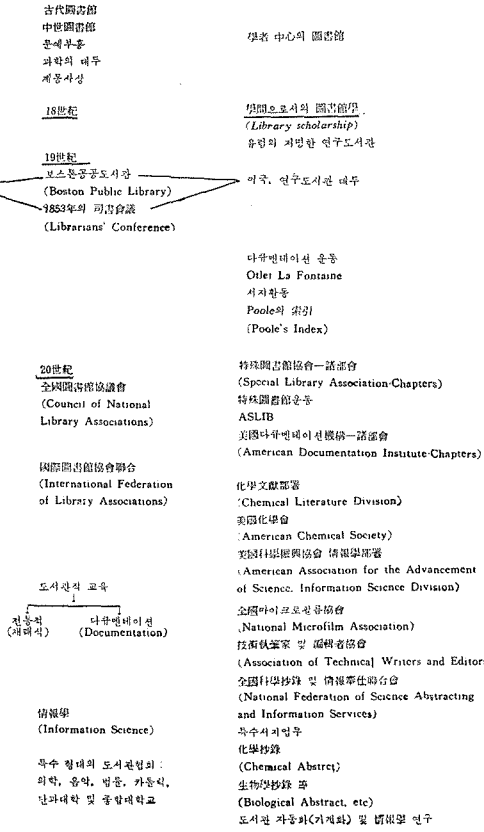


표 1. 諸誌의 학문으로서의 圖書館學

認知케 해서 이미 이루어진 업적에 그의 창조적인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가 탐구하고 있는 주제를 담은 현존 문헌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sup>6)</sup>을 뜻한다. 그래서 Bradford는 수집과 조직을 강조했고 고객을 학자로 제한했던 것이다. O. Murra는 '도서관자로 불 처리하고 조직하는 일'<sup>7)</sup>이라는 *Schweizer-Lexicon*의 정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Briet女史는 이러한 정의 가운데 아마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한 것 같다. 즉 그녀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까지도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sup>8)</sup> 筆者는 1951년에 다큐멘테이션이란 學問 혹은 學者(scholarship)의 필요에 資하는 서지상 조직의 일부이며 다큐멘테이션은 일반 대중, 비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活動에는 관련이 없다. [그 기능은] 전문가 그룹내에 혹은 여러 전문가 그룹사이에<sup>9)</sup> 기록된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처리함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은 筆者의 정의도 지금 와서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만일 다큐멘테이션이 圖書館學을 응용한 한 체계(system), 혹은 한 방법(method)이라면 그 기술(techniques)은 분자물리학의 전공논문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이 아동도서에서도 적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documentation」이란 용어의 의미는 적어도 美國에서 본다면 사실상 學的인 문제로 대두되어 「librarianship」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 것 보다 더 廢用된 용어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큐멘테이션을 열렬히 추창하는 사람들이나 묵묵히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그 대다수가 불과 수년만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 자신도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로 여기게끔 되었다. 1962年 봄, 조오지아工科大学(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최되었던 科學情報專門家(Science Information Specialist) 會議에 관한 회의에서는 그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이 「다큐멘테이션과 다큐멘탈리스트」(documentation and documentalists)란 용어는 꼭 피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이 밝힌 이유는,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를 부분별하게 사용하고 그 용어의 의미를 구구하게 해석하는 광범한 辯解체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용어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부여한 특정한 정의를 반드시 밝히기를 제안하였다.<sup>10)</sup> 다큐멘테이션이란 모호한 광범성을 지닌 용어에 대한 代案으로 조오지아 會議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司書(librarian), 特殊司書(special librarian), 科學司書(science librarian), 技術文獻分析家(technical literature analyst) 및 情報家(information scientist)로 나누었으며, 情報家는 업무보다 오히려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토록 하였다. 이 範疇化가 유효한가 안한가는 여기서 논의되어 질 수 없지만, 조오지아 會議에서 논의한 용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感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튼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는 美國圖書館協會가 협회내에 새로이 情報學 및 自動化부서(division of Information Science and Automation)를 만들때 그 명칭에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하였던 사실과 美國 다큐멘테이션機構(ADI)가 그 명칭을 美國情報學會(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로 바꾸었던 사실로 미루어 그 최후를 장식한 것 같이 보인다.

#### 司書의 世界에 있어서 情報學

Shannon과 Weaver가 그들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을 끌어 냈을때 그들도 역시 용어를 불행히도 잘못 사용한 과실을 범하였다. 그들은 물론 정보 이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통신이론(signal theory) 기호의 의사전달 용량, 전화선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나 경로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情報學이란 용어 자체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기록된 지식에의 접근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용어를 붙잡는데 결코 느릿 느릿하지 않았다. 그 결과 情報學은 이내 非傳統的 圖書館學을 대표하는 응인된 용어가 되었다. 정보 이론과 기록된 지식의 활용과의 자세한 관계는 1962年 7월호 *Behavioral Science*(제7권 p. 395)에 무명의 한 리머릭 작가가 기고한 글에 잘 나타나 있음직 하다. 즉

Shannon과 Weiner와 나는

$\sum ip \log pi$  공식으로 (역자주:  $\sum pi \log pi$ 는 情報工業에서 시도하고 인간의 슬기를 재고 있는 數式으로  $p$ 는 확률 즉 probability,  $i$ 는 정보 즉 information임)

통신로 용량을 측정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머리만 혼머했졌을 뿐이네

조오지아會議은 情報家(information scientist)를 다

10. Unpublished definitions.

6. op. cit.,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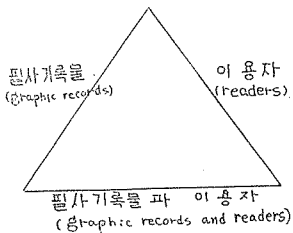
7. Murra, Kathine O. Second interim report of the Unesco/Library of Congress Bibliographical Planning Group. Appendix to the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13-19 September, 1949), 6. See also Kerno, Leo M. *Grundfragen der Documentation*. Bern, Buchler and Co., 1948. p. 3-5.

8. Berit, Suzanne. *Qu'est-ce que la documentation?* Paris, EDIT, 1951, p. 7.

9. Shera, Jesse H. Documentation: its scope and limitations. *Library Quarterly*, vol. 21 (January 1951), p. 13-14. Reprinted in the author's *Document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London, Crosby Lock wood, 1966, p. 2-3.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정보' 축적과 정보 검색 학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정보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안을 고안하는 사람, 정보 영역 및 정보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하여 問題는 圖書館學과 다큐멘테이션의 구분(distinction)으로부터 圖書館 專門職과 情報學사이의 界面(interface)으로 바뀌었다.

이와같은 새로운 局面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圖書館學 그 자체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圖書館學은 본래 전문직 활동의 하나로서, 필사기록물(graphic records)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사회에 유용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인류를 위하여 필사기록물의 사회적 활용화를 最大化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機構 운영 기술 원칙에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점, 즉 司書의 사회적 역할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도표로 훌륭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司書의 사회적인 목적은 삼각형의 基底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다큐멘테이션은 위에 지적한 것 처럼 圖書館學의 한 형식(form) 혹은 한 부분(aspect)에 지나지 않는다. 즉 筆者가 다른 기회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큐멘테이션은 원기가 왕성하고 민감한 도서관학(librarianship in a high key)<sup>11)</sup>이다. 圖書館學은 명백히 奉仕專門職이며, 그 內的인 變體(variant)는 봉사하는 단체의 본질과 성격에 의해 형태를 이루게 된다. 圖書館學은 아롱든 圖書館學임에 틀림이 없다. 圖書館學이 실험관과 증류기에 둘러 쌓여있는 과학자의 서지적 요구에 봉사하거나 혹은 처음보게 되는 그림책에 골몰하는 어린아이에 봉사하거나간에 圖書館學은 圖書館學일 수 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Rees와 Saracevic은 特殊圖書館協會(SLA) 1967年 年次總會에서 청중에게 행한 발표 가운데 情報學은 '다큐멘테이션이나 정보 검색이나 도서관학 혹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되어 질 수가 없다. 마치 물리학이 공학을 與歷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학은 자극적이며 달콤한 정보 검색이나 도서

관학은 아니다'<sup>12)</sup>라고 말하였다. 이들 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情報學이란 情報의 屬性, 行爲, 流動에 대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각종 형태의 學問으로부터 그 本體, 方法, 技術을 이끌어 내는 연구의 한분야이다. 情報學은 체계 분석(system analysis), 인퍼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적인 부분, 정보 매체 및 언어의 분석, 정보의 조직, 인간 對 체계와의 관계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속성에 대한 탐구라는 情報學의 정의에 도달하고 있다.

筆者는 Rees와 Saracevic이 情報學을 하나의 전문직 현상으로 추구하기를 거부할 때, 情報學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운용상의 봉사업무에 관련을 갖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을 논박할 수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情報學은 조금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그들은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情報學도 인간 對 인간, 인간 對 인간환경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는 충족시키고 있다. 하나의 전문직이라 하면 그 전문직이 반드시 '운용상의 봉사'(operational service)에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곧 순수 과학의 모든 分科와, 꼭 순수 과학이 아니더라도 이론적인 배경을 지닌 다른 형태의 학문의 모든 分科에 그 전문직적 현상을 부여함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다. 情報學은 아직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해 情報學이 기여하고 있는 여러 학문 가운데 하나로부터 이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며 이점 圖書館學과 관련지워 본다면 情報學은 圖書館學의 實際(實務)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직적 특성(professionalism)에 관한 논쟁은 훌륭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연구 (Research)		실무 (Practice)	
일반화할 수 있는 영역 (Generalizable)	전문화된 영역 (Specialized)	기술 (Technology)	봉사 (Service)
기초적 서지학, 서지적 방법	특정 도서관 운영에 적용되는 연구	디지털의 서지	지역사회 독서인 관심
컴퓨터에 의한 서지학	편리성 연구	서지의 구성	다 거구와의 관계
정보학	도서관 운영과 설계	운영 (Operation)	
컴퓨터에 의한 서지적 방법	체계 분석 및 디자인 (Systems analysis and design)	기술 봉사업무	
다제 봉사 (공민적, 생물학, 생물화학 및 인문학에 의한 지원 등 포함)	봉사업무의 측정	기술 봉사업무 관리	
		독서 프로젝트	
		주제별 부서	
		도제와의 관계	
		신용성 및 서지적 연구	
		유선	

표 2. 圖書館學의 조직도형

12. Rees, Alan; Saracevic, Tefko.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its relation to librarianship*. Unpublished paper presented before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New York, 1967, p. 2.

11. Shera, Jesse H. *Librarianship in a high key*. *ALA Bulletin*, vol. 50 (February 1956), p. 103-5.

좀더 살펴 보기 위해 Rees와 Saracevic이 案出한 圖書館學의 스펙트럼을 표 2와 같이 약간 改變한 形으로 다시 만들어 보았다.

표 2의 여러 구성 요소는 분명히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독립적이다. 실무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연구는 실무를 형성하거나 형성하기까지는 압드라도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 깊은 圖書館學의 假定과 그때 그때의 特別研究는 금일의 복잡한 기록된 지식 세계에 있어서 더 이상 충분할 수가 없다. 더우기 표 1에 나타난 조직상 구조는 표 2의 구성 요소와 일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前者에 있어서는 통일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단편성을 들어내고 있는 반면 後者는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같은 불행한 兩斷性 혹은 不同性은 법률학이나 의학과 같은 다른 전문직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의과사와 같은 전문가는 의사로서 그의 전문직 교육을 시작해서 그의 전문성이 의학 總體의 일부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各分科의 법률전문가도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圖書館學은 아직도 모든 司書와 情報專門家가 각각 자기들의 전문화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숙달해야 할 보편적이며 일반화한 학문(discipline)을 발전시켜 소유하게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實務)의 本體를 확립하는 일은 圖書館學教育의 고유한 책임이며, 이점 실무가들과도 진실한 유대 관계를 맺어 이를 규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圖書館學에 對한 情報學의 關係

Robert S. Taylor는 최근 國立科學財團(NSF)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한 연구에서, 圖書館學 및 圖書館學教育에 情報學 및 情報工學이 상호작용하는 다섯 분야를 식별한 바 있다. 즉

1. 圖書館, 圖書館의 諸部面, 혹은 圖書館網과 같은 규모가 큰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標本型(models)과 擬型(simulations)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연관된 체계 분석(system analysis)
2. 도서관이 운용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연구, 지식의 사회적인 처리, 사회의 각종 분야 혹은 각종 형태의 사회 그리고 지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知的要求로 이루어진 환경(environment)
3. 지식을 입수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매체를 에워싼 정보경로(혹은 정보 통신로; information channel)
4. 네번째 범주는 서지 조직 혹은 서지 분석(bibliographic organization or analysis)이라 불려도 무

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兩者는 命名하고, 標識하고, 分類하는 과정을 다루기 때문이며, 언어학자, 논리학자, 심리학자, 수학자의 업적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크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끝으로 兩者는 人間對體系 界面性(man-system interface)을 띄고 있으며, 그 界面은 이용자와 서지업무 혹은 서지 방식 사이에—어떠한 종류나 형태로 이용자가 서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관없이—발생하는 상호작용의 全體性에 관련되어 있다. 그와 같은 ‘媒介’(instrumentality)는 인간일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으며, 참고사서, 카야드 목록, 색인, 컴퓨터 혹은 단 한편의 책일 수도 있다.<sup>13</sup> Taylor자신도 이와같은 영역이 여러 점에서 兩者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 어느 한 연구가 여러 系列을 단축 종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Taylor를 포함한 情報學者들은 그 점 보다도 圖書館學에 대비하는 情報學의 지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圖書館學的 面에서 본다면 圖書館學이 무엇일,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의 물음에 現代 圖書館學이 실패한 점들을 그들이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情報學은 그러고 보면 圖書館學에 對해 正反對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反對로 圖書館學과 情報學은 천생 연분의 盟友이다. 그러므로 司書가 이 새로운 知的 작을 거역하지도 말아야 하고 情報家가 司書を 멸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兩者는 실수를 저질러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범할 것이다. 만일 司書쪽이 과오를 범한 죄가 더 많다면 그것은 오로지 司書가 실수할 시간을 더 많이 가졌었던 때문일 뿐이다. 기회의 범칙은 실수없는 혁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司書와 情報家가 각각 다른 입으로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용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겠지만 중국에 가서는 서로 화합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될 것이다. Rees와 Saracevic과 Taylor는 모두 새로운 세대, 즉 圖書館學을 學者 中心의 司書(scholar-librarian)로 後進시킬 수 있는 세대의 司書로서의 징후를 다분히 보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새 세대의 司書, 곧 情報家는 새로운 종류의 學者—司書(學者의 學問 또한 고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변모할 것이다)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情報家는 圖書館學 專門職이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찾아오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그들이 친성적으로 몸 담고 있는 圖書館學 專門職을 지적으로 풍요하게 하고 심화시키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13. Taylor, Roberts S. The interface betwee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Special Libraries*, vol. 58 (January 1967), p. 45-8